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혜순(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변상해(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소재 5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64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의사소통, 화(angry) 및 소외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성별과 학년, 일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통신요금은 스마트폰 중독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고, 셋째, 성별과 학년, 일평균 사용시간과 통신요금의 차이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에 중독 또는 사용빈도가 지나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순기능을 높여 보호요인을 증진시키고, 역기능인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또래 관계

### 1. 서론

21세기 이후 정보기술 발달은 첨단디지털 미디어기기의 개발과 정보공유의 편리성을 가져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5년 현재 4,125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 혁명’이라 일컬을 만큼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를 맺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Kang et al.(2013)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보고하였고,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할 만큼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Jo(2012)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확산은 청소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교육방법과 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되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소셜 미디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강한 중독성은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래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5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11년 8.4%,

’14년 14.2%)이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 (인구수 4,561천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Kim(2014)은 급증하는 스마트폰 확산과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일일 사용량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 내성 및 금단 증상 경험을 보고하였다. Park et al.(2015)는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서 심리적인 측면의 지지와 치료상당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Gu(2014)은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블링, 유해컨텐츠 접속 등 여러 사회적 역기능 문제를 연구하였다.

Bowen. & Firestone(2010)의 ‘전자 미디어의 병리적 사용(PUEN: 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병리적인 사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의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체적 문제(Kim, 2014), 소외(Park et. al.2015) 등의 부정적인 결과 혹은 의사소통, 자기표현 욕구(Jo, 2012) 등의 긍정적인 결과만을 다루고 있어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한 더 많은 또래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

\* 제1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jm9004@svu.ac.kr

· 투고일: 2014-09-22 · 수정일: 2015-10-07 · 게재확정일: 2015-10-21

마르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Santrock(1996)는 청소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가치 있는 도전과 기회, 성장을 제공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시기로 보았다. Fornas(1995)은 청소년기는 성장의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등 발달 심리학에서 생리학적 발달국면(physiological development)인 청소년 성장기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Hong, et. al.(2014)는 자아 정체감의 위기와 갈등을 겪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 구조에 소외감을 경험하고, 사회·심리적 독립성과 자율성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감, 불만 등을 경험하게 된다. In(2010)은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보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개인별 특성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시기 동안 갈등을 겪는다.

Jo, et. al.(2012)는 청소년의 인지적·심리적·사회적 특성 연구에서 인지적 특성은 지식의 구성·획득·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고, 심리적 특성은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해결력, 개념화, 범주화, 같은 고등정신과정으로 다양화되며, 사회적 특성은 성장하면서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보다 큰 집단인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

인지발달이론가인 피아제(Piaget, 1968)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을 13세 이후로 설명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의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Howes & Hamilcon(1992)은 기존의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움을 느끼며,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정의적인 결합체로 보았다.

### 2.2 청소년과 또래관계

Perry & Bussey(1984)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연령이 비슷하거나 성숙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Kang, et. al.(2008)은 청소년시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또래관계로 옮겨진다.

Kwon, et. al.(2012)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또래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인관계도 외형적인 관계에서 내면적인 관계로 깊어진다. Choi(2012)는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한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과 타인들과의 유사점을 정의하는 것이고, 집단에 맞추면서 개성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Choi(2012)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또래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청

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사회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 Kim(2010)은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Han(2014)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친구관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또래관계 맺는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MSIP(2015)의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 4,125만 명으로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상세계에서 친구관계를 맺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사용이 또래관계에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친구들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는 사회적지지 및 정서적 안정감을 이룰 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 2.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이용 용도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42.8%, 온라인 게임48.5%, 일반적인 웹서핑이 4.9%, 학업·업무용 검색이 4.2%, 뉴스 검색이 2.9%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의 20%가 스마트폰 위험사용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며 스마트폰 위험사용군에 속한다고 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91.1%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예방교육(51.5%)과 상담(26.2%) 등을 통한 스마트폰 중독예방이 필요하였다.

MOGEF(2013)에서는 컴퓨터가 스마트폰 보다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 용이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에 따르면 반 친구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스마트폰 따돌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노출시간이 많음에 따라 또래들과 관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늘 소통하려 한다.

Kim(2014)과 Yoon, et. al.(2011)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중독으로 유도하는 요소와 신체적 문제를 보고하였다. Kim, et. al.(2014)은 청소년들은 또래들끼리 안정감과 우정을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만남, 대화, 놀이가 실제 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현상이 많아졌다.

Jo(2012)는 스마트폰은 편리한 의사소통수단이 되고,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래문화의 주요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Roh(2013)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Yoon, et. al.(2011) 및 Jo(2012)는 또래들의 관계도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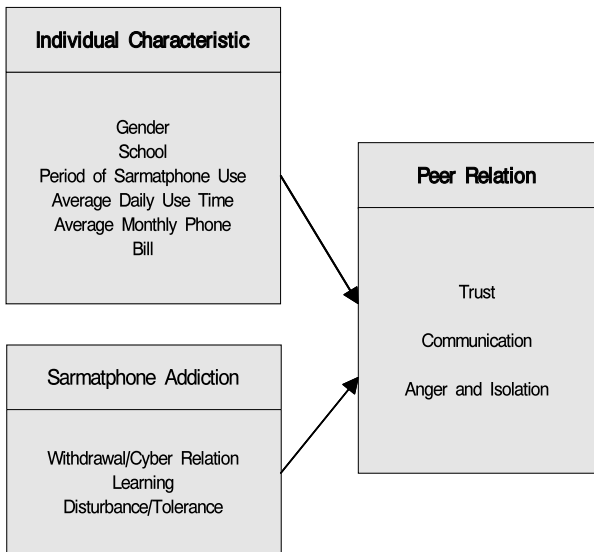
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낮고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제시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서울시내 5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5년 4월 8일에서 5월 15일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교 담임 선생님께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을 받았으며, 699부를 설문조사 후 설문문에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640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의 차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 3.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Kwon1(2013)SAS-SV 척도지의 10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래관계는 Gullone & Robinson(2005)의 IPPA-R(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을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에 관한 1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스마트폰 사용기간, 일평균 사용시간 및 한 달 평균 통신료 등의 5문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 IV. 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남학생은 443명(69.2%), 여학생이 197명(30.8%)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145명(22.7%), 3학년은 495명(77.3%)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6개월 미만은 83명(13.0%), 6개월-1년 미만이 127명(19.8%), 1-3년 미만은 284명(44.4%), 3-5년 미만은 115명(18.0%), 5년 이상이 31명(4.8%)으로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미만은 52명(8.1%), 1-2시간미만이 181명(28.3%), 2-3시간미만은 177명(27.7%), 3-4시간미만은 122명(19.1%), 4-5시간미만이 54명(8.4%), 5시간 이상 54명(8.4%)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스마트폰 통신료는 2-4만원 미만이 306명(47.8%), 4-6만원 미만은 172명(26.9%)으로 74.7%가 2-6만원 정도 통신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Div.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Gender	Boy Students	443	69.2
	Girl Students	197	30.8
School Year	1st Year	0	0.0
	2nd Year	145	22.7
	3rd Year	495	77.3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	83	13.0
	6 months to 1 year	127	19.8
	1-3 Years	284	44.4
	3-5 Years	115	18.0
	Over 5 Years	31	4.8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	52	8.1
	1-2 Hours	181	28.3
	2-3 Hours	177	27.7
	3-4 Hours	122	19.1
	4-5 Hours	54	8.4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	89	13.9
	W20,000-W40,000	306	47.8
	W40,000-W60,000	172	26.9
	W60,000-W80,000	49	7.6
	Over W80,000	24	3.8
Total		640	100.0

4.2.1 신뢰성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스마트폰 중독 0.855, 또래관계 0.745로 0.6 이상의 신뢰수준을 충족하여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2.2 타당성 분석

4.2.2.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1.725%였다. '요인 1'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견디기 힘들며,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칠까봐 확인하게 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금단·가상관계'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시간은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사용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업장애·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금단·가상관계가 0.825, 학업장애·내성은 0.797 등으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2.2.2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3>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1.951%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이고, 그 친구들을 신뢰하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신뢰'로 규정하였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Factor	Item	Component	
		1	2
Withdrawal-Cyber Relation	Feeling impatient and fretful when I am not holding my smartphone.	.836	
	Won't be able to stand not having a smartphone.	.825	
	I will never give up using my smartphone even when my daily life is already greatly affected by it.	.736	
	Feeling the urge to use my smartphone again right after I stopped using it.	.713	
	Constantly checking my smartphone so as not to miss conversations between other people on Twitter or Facebook.	.567	
Learning disturbance-Tolerance	Missing planned work or study due to smartphone use		.856
	Having a hard time concentrating in class, while doing assignments, or while working due to smartphone use.		.784
	Using my smartphone longer than I had intended.		.721
	The people around me tell me that I use my smartphone too much.		.654
eigenvalue		2.967	2.589
Variate %		32.962	28.763
The cumulative univariate %		32.962	61.725
Cronbach's $\alpha$		.825	.797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er Relations

Factor	Item	Component		
		1	2	3
Trust	I think my friends are good.	.783		
	I trust my friends.	.768		
	My friends understand me.	.733		
	My friends respect how I feel.	.710		
	My friends accept me as I am.	.705		
Anger & Isolation	My friends do not understand what I am suffering.		.792	
	I feel shamed and stupid when I discuss matters regarding myself with them.		.720	
	When I experience something bad, I feel more hurt than my friends expect.		.687	
Communication	I feel anger about my friends.		.640	
	I want to take the advice of my friends when I am worried.			.833
	I usually talk to friends about difficulties or worries that I have.			.730
	My friends notice quickly when I am upset.			.689
eigenvalue		3.136	2.276	2.022
Variate %		26.133	18.967	16.851
The cumulative univariate %		26.133	45.100	61.951
Cronbach's $\alpha$		.854	.728	.707

'요인 2'는 친구들이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의미로 '화 및 소외감'으로 하였다.

'요인 3'은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과 이야기 하거나 친구들이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잘 알아차린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의사소통'으로 규정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신뢰 0.854, 화 및 소외감 0.728, 의사소통 0.707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 4.3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요인을 투입하여 개인적 특성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또래관계가 신뢰,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의 3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VIF값의 경우 1단계 1.016-1.090, 2단계 1.028-1.164로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4.3.1 스마트폰 중독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3.016으로서  $p<.05$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3%였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t=3.354$ ,  $p<.01$ )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 경우 또래관계에서의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친구들을 신뢰하고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끼며 인지하고 있었다.

<Table 4>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rust

Independent Factors	Phase	Phase 1			Phase 2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1)	.289	.134	3.354**	.270	.125	3.072**
	School Year	-.099	-.042	-1.053	-.108	-.045	-1.141
	Period of Use	-.012	-.012	-.313	-.010	-.010	-.260
	Daily Use Time in Average	.030	.041	.998	.030	.040	.954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19	-.018	-.430	-.013	-.012	-.301
Addiction	Withdrawal-Cyber Relations Learning				-.034	-.034	-.836
	Disturbance-Tolerance				.040	.040	.977
F		3.016*			2.401*		
R2		.063			.076		
$\Delta R2$					.003		

\* $p<.05$ , \*\* $p<.01$ ,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이 2.401로서  $p<.05$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6%로서 1단계보다 1.3% 증가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성별( $t=3.072$ ,  $p<.01$ )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 중독의 하부요인 중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또래관계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내용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 4.3.2 스마트폰 중독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 통계 값은 5.437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8.1%이었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t=4.238$ ,  $p<.001$ )이 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은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거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잘 들으며,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이 10.502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14.4%로서 1단계보다 6.3%가 증가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성별( $t=3.457$ ,  $p<.01$ )이 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중독의 주요 요인인 금단·가상관계( $t=4.889$ ,  $p<.001$ )와 학업장애·내성( $t=4.770$ ,  $p<.001$ )이 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금단·가상관계와 학업장애·내성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ommunication

Independent Factors	Phase	Phase 1			Phase 2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1)	.362	.167	4.238***	.292	.135	3.457**
	School Year	.065	.027	.695	.013	.005	.142
	Period of Use	-.045	-.046	-1.165	-.038	-.039	-1.023
	Daily Use Time in Average	.058	.080	1.966	.008	.011	.283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36	.034	.830	-.005	-.005	-.127
Addiction	Withdrawal-Cyber Relations Learning				.192	.192	4.889***
	Disturbance-Tolerance				.189	.189	4.770***
F		5.437***			10.502***		
R2		.081			.144		
$\Delta R2$					.063		

\*\* $p<.01$ , \*\*\* $p<.001$ ,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 4.3.3 스마트폰 중독이 화 및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화 및 소외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3.012로서  $p<.05$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화 및 소외감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t=-2.461$ ,  $p<.05$ )은 부(-)의 영향과, 학년( $t=2.656$ ,  $p<.01$ )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의 화 및 소외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거나 학년이 높을 경우 친구들의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분노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 모형의 F통계 값이 11.112로 나타나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15.0%로서 1단계보다 8.7%가 증가하였다.

화 및 소외감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t = -3.329$ ,  $p < .01$ )은 부(-)의 영향과, 학년( $t = 2.167$ ,  $p < .05$ )은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독의 요인인 금단·가상관계( $t = 6.401$ ,  $p < .001$ )와 학업장애·내성( $t = 4.815$ ,  $p < .001$ )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금단·가상관계와 학업장애·내성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화 및 소외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세부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Impact of Smartphone on Anger and Isolation

Independent Factors	Phase	Phase 1			Phase 2		
		B	$\beta$	t	B	$\beta$	t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1)	-.212	-.098	-2.461*	-.280	-.129	-3.329**
	School Year	.251	.105	2.656**	.197	.082	2.167*
	Period of Use	-.038	-.040	-.994	-.032	-.033	-.871
	Daily Use Time in Average	.019	.026	.623	-.039	-.054	-1.333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02	-.002	-.053	-.054	-.051	-1.291
Addiction	Withdrawal-Cyber Relation				.251	.251	6.401***
	Learning Disturbance-Tolerance				.190	.190	4.815***
F		3.012*			11.112***		
R2		.063			.150		
$\Delta R2$					.087		

\* $p < .05$ , \*\* $p < .01$ , \*\*\* $p < .001$ ,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 4.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 관계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남녀 성별과 학년은 t-test를 하였고, 스마트폰 사용기간, 일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통신료는 ANOVA로 분석하였다.

##### 4.4.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학업장애·내성( $t = -5.032$ ,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업장애·내성( $t = -2.956$ ,  $p < .01$ )에서 차이가 있었고, 2학년보다는 3학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면서 3학년일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장애와 내성을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세부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Difference in Smartphone Addiction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		Withdrawal-Cyber Relation			Learning Disturbance-Tolerance		
		M	SD	t-F	M	SD	t-F
Gender	Boy Students(n=443)	2.233	.964	-1.411	2.968	1.111	-5.032***
	Girl Students(n=197)	2.352	1.049		3.449	1.125	
School Year	2nd Year(n=145)	2.145	1.026	-1.722	2.872	1.204	-2.956**
	3rd Year (n=495)	2.306	.980		3.188	1.107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n=83)	2.212	.996	2.304	3.154	1.085	2.23
	6 months to 1 year (n=127)	2.354	1.007		3.089	1.180	
	1-3 Years(n=284)	2.168	.929		3.112	1.157	
	3-5 Years(n=115)	2.377	.975		3.170	1.130	
	Over 5 Years (n=31)	2.606	1.386		2.976	.973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n=52)	1.558	.663	11.735***	2.260	1.076	13.125***
	1-2 Hours(n=181)	2.071	.904		2.843	1.077	
	2-3 Hours(n=177)	2.348	1.001		3.249	1.089	
	3-4 Hours(n=122)	2.425	.899		3.369	1.114	
	4-5 Hours(n=54)	2.552	.902		3.458	1.130	
	Over 5 Hours(n=54)	2.730	1.294		3.514	1.010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n=89)	1.807	.797	10.243***	2.654	1.091	5.168***
	W20,000-W40,000(n=306)	2.254	.977		3.169	1.133	
	W40,000-W60,000(n=172)	2.323	.904		3.195	1.123	
	W60,000-W80,000(n=49)	2.776	1.141		3.423	1.129	
	Over W80,000(n=24)	2.767	1.342		2.969	1.084	

\*\* $p < .01$ , \*\*\* $p < .001$ , a, b c는 Scheffé Verification results(a>b>c).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평균 사용시간에서는 금단·가상관계( $F = 11.735$ ,  $p < .001$ ), 학업장애·내성( $F = 13.125$ ,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시간미만 또는 1~2시간미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더 높았다.

월평균 통신료에 따라 금단·가상관계( $F = 10.243$ ,  $p < .001$ ), 학업장애·내성( $F = 5.168$ ,  $p < .001$ )에서 차이가 있었고, 2만원 미만에 비해 6-8만원 미만을 월평균 통신료로 지불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여 통신료를 많이 지불하는 학생들은 중독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4.4.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 관계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신뢰( $t = -5.322$ ,  $p < .001$ ), 의사소통( $t = -5.257$ ,  $p < .001$ ), 화 및 소외감( $t = 3.638$ ,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신뢰와 의사소통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화 및 소외감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화 및 소외감( $t = 2.866$ ,  $p < .01$ )에서 차이가 있었고, 2학년보다는 3학년들이 화 및 소외감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월평균 스마트폰 통신료에 따라서는 또래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평

균 사용시간에서는 의사소통(F=2.701, p<.05), 화 및 소외감(F=2.25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시간미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높았고, 1시간미만보다 2~3시간미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화 및 소외감이 더 높았다. 세부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Difference in Peer Relation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		Confidence			Communication			Anger & Isolation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Boy Students (n=443)	3.874	.660	-5.322***	3.137	.824	-5.257***	2.107	.654	3.638***
	Girl Students (n=197)	4.165	.590		3.504	.797		1.900	.685	
School Year	2nd Year (n=145)	4.039	.694	1.572	3.246	.862	-.006	1.903	.654	-2.866**
	3rd Year (n=495)	3.942	.640		3.251	.825		2.084	.670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n=83)	4.065	.725	1.488	3.406	.857	.998	2.000	.679	.808
	6 months to 1 year(n=127)	3.904	.647		3.184	.802		2.077	.695	
	1-3 Years (n=284)	3.934	.627		3.227	.856		2.077	.662	
	3-5 Years (n=115)	4.049	.640		3.270	.816		1.987	.630	
	Over 5 Years (n=31)	3.897	.737		3.247	.725		1.919	.770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n=52)	3.962	.731	1.121	2.987	1.020	2.701*	1.827	.648	2.254*
	1-2 Hours (n=181)	3.943	.647		3.184	.833		2.065	.657	
	2-3 Hours (n=177)	3.911	.641		3.309	.745		2.147	.636	
	3-4 Hours (n=122)	3.959	.669		3.205	.870		2.004	.769	
	4-5 Hours (n=54)	4.081	.600		3.463	.722		1.968	.591	
	Over 5 Hours (n=54)	4.104	.642		3.420	.855		2.000	.642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n=89)	3.973	.675	.263	3.225	.838	1.242	1.994	.642	.201
	W20,000-W40,000 (n=306)	3.969	.658		3.253	.851		2.055	.690	
	W40,000-W60,000 (n=172)	3.943	.643		3.194	.775		2.047	.638	
	W60,000-W80,000 (n=49)	4.029	.607		3.490	.839		2.071	.669	
	Over W80,000(n=24)	3.883	.710		3.222	.941		1.990	.796	

\*p<.05, \*\*p<.01, \*\*\*p<.001, a, b는 Scheffé Verification results(a>b).

이상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과 화 및 소외감 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은 기각되었고, 1-2와 1-3은 채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통신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래관계는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2-1’과 ‘가설2-2’는 일부분만 채택되었다. 세부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Result
H1 (Peer Relations)	H1-1 Smartphone Addiction → Trust	Rejected
	H1-2 Smartphone Addiction → Communication	Accepted
	H1-3 Smartphone Addiction → Anger & Isolation	Accepted
H2 (Smartphone Addiction, Peer Relations)	H2-1 Individual Characteristics → Smartphone Addiction	Partially Accepted
	H2-2 Individual Characteristics → Peer Relations	Partially Accepted

## VI. 결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여 월평균 통신료를 많이 지불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과 화 및 소외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요인 분석 결과, ‘금단·가상관계’와 ‘학업장애·내성’으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요인은 또래관계의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괴롭힘 대처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통신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래관계는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의의는 첫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 등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 부분에만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 요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를 맺는데 있어 새로운 관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교육의 법제화,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향후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고 스마트폰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순

기능을 강화고, 역기능을 감소시켜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학령기 청소년의 올바른 또래관계에서 신뢰 회복, 원활한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기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을 표집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중학생 위주로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부모, 학교, 교사관계까지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

- Bowen, M. W., & Firestone, M. H.(2010), 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 Case Studies and Community, *Psychiatry Q.* 82, 229-238.
- Cho, M. H.(2013), *The Influence of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pon Smart-Phone Overuse; By Having Depression as Parameter*, Master's Thesis, Dept. of Counseling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 Cho, N. A.(2012), The Study about Social Media Literacy of Youths, *Journal of Youth Welfare*, 14(4), 93-111
- CHO, S. Y.(2014),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between the Adolescent's Parents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 Fornäs, J.(1995), *Youth culture in late modernit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u. Y. G.(2014), *The Effects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 Gullone, E., & Robinson, K.(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IPPA-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67-79.
- H. J. H.(2014),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in College Students-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Friendship*, Doctor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Hong, B. S., & Nam. M. A.(2014), *Youth Welfare*, Seoul: Yangseowon, 558-559.
- Howes, C., & Hamilton, C. E.(1992), Children's relationship with child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3(4), 867-878.
- In, S. K.(2010), *A Study on College Entrance Stress Variables Which Affect on College Applica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Kyonggi-do, Korea.
- Jo, S. Y., Yoo. G. E., Park. E. M., Jeong. C. S., Do, M. Y. Gile. E. B., & Kim, M. J.(2012), *Introduction to Youth Welfare*, Seoul: Changgisa.
- Kang, M. G., & Kim. G. G.(2008),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in Social Situations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Youth Counseling Studies*, 15(2), 87-101.
- Kang, W. S., Kim. M. S., & Ko. J. U.(2013), Effects of the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7(2), 199-214.
- Kang, H. S.(2014), *The Effect of Adolescent Using degree of Smartphone on Peer Relationship and On-line Communicati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Kang, W. S.(2013), *Effects of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Department of ElderlyWelfar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im, H. H., & Oh, H. J.(2014),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the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4), 35-57.
- Kim, J. H.(2010), *The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family cohesSeoul Cyber Univerityon and adaptability on peer relationship*, Master's thesis,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Graduate School Cyber University.
- Kim, D. I.(2014), Smartphone navigation features addiction: Use of addiction risk aspects, symptoms, mainly the recognition of addic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Forum Information and Culture Policy Research Reports*, 257-283.
- Kim, S. Y., No. H. R., & Shin. H. J.(2012), *Youth Welfare*, 374, Seoul: Yangseowon.
- Lee, C. H.(2013), *Youth survey using smartphone in Korea*, 13-R08, Seoul: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1-311.
- Kwon, M., Kim, D. J., Cho, H., & Yang, S.(2013). The smartphone addic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for adolescents. *PLoS one*, 8(12).
- Park, K. W., & Kim. K. S.(2015),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20(1),1-32.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Piaget, Jean.(1968), *Six Psychological Studies*, Translation from the French by Anita Tenzer, Translation edited by David Elkind, New York.
- Roh, S. Z. (2013),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nd Personal-Psychological Factors,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ffecting High-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9(4), 659-691.
- Santrock, J. W.(1996). *Adolescence: An introduction*, :Brown & Benchmark Publishers.



#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im Hye Soon\*  
Byun Sang Hae\*\*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how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affect their peer relation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a survey was performed on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Seoul. For the final questionnaire of 640,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addiction did not affect the trust in peer relations, but affected communication, anger and isolation positively; Second, the degree of smartpone addic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in gender, school year, average daily use time and average monthly phone bill; Third, a difference regarding peer relations was found in gender, school year, average daily use time and the monthly expenses. These study finding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executable and socially acceptable program that promotes good functions of smartphone and discourage negative ones, thus helping alleviate the smartphone addiction problem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Peer Relations*

---

\* Under a Doctoral Program on Social Welfare Counselling at Seoul Ventur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Counselling at Seoul Venture University Graduate School.